



KIA 우완 김윤동, 소방수 DNA 각인

사실상 2년차...묵직한 직구 중심 예리한 슬라이더

KIA 우완 김윤동(24)이 북북히 소방수의 길을 가고 있다.

김윤동은 지난 1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NC다이노스와의 시즌 10차전에서 귀중한 세이브를 따냈다. 7-4로 쏙긴 가운데 9회초 2사 1.2루에서 임기영을 구원해 나서 모창민에게 스트레이트 볼넷을 허용했으나 박석민을 2루 땅볼로 유도하고 승리를 지키고 시즌 10세이브를 수확했다.

이날 승리는 KIA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경기였다. 2위 NC와의 3연전 첫 경기의 향방에 따라 나머지 2경기의 흐름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NC와의 승차를 6경기째 벌이면서 안정적인 행보를 이어갈 수 있었다. 까다로운 NC에게 당했던 4연패도 말끔히 씻어냈다.

김윤동은 사실상 전문 소방수의 길을 가고 있다. 데뷔 시즌이나 다

름없었던 작년 32경기에 출전해 2세이브 2홀드를 기록했다. 올해는 선발후보로 개막을 맞이했으나 어느새 필승맨에서 소방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임창용이 부진에 빠지면서 젊은 김윤동이 뒷문지기 노릇을 하고 있다.

올해 38경기에서 3승10세이브3홀드, 평균자책점 4.50을 기록하고 있다. 민족할만한 성적은 아닐 수 있지만 사실상 2년차 투수로서 큰 몫을 하고 있다. 묵직한 직구를 중심으로 예리한 슬라이더가 먹히기 시작하면 쉽게 공략하기 힘든 투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기태 감독도 "윤동이는 현재 우리 불펜투수 가운데 가장 좋은 볼을 던지고 있다. 마지막 투수(소방수)라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마운드에 오르는 투수라는 것이 정답이다. 이 정도면 잘해주고 있

다고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도 소방수 혹은 필승맨으로 가장 중요한 시점에 김윤동을 올리고 있다.

아직은 아슬아슬한 소방수의 길을 걷고 있다. 6월 이후 14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는 11경기였다. 공교롭게도 2경기에서 각각 5실점(5자책)이 컸다. 6월 25일 마산 NC전과 7월 5일 인천 SK전에서 각각 1이닝을 5실점했다. 위력적인 볼을 던지다 제구력이 흔들려 볼넷을 잇따라 내주면서 무너졌다. 긴장감을 이기지 못하고 대량실점을 했지만 다음 경기에서는 위력적인 볼을 던졌다.

경험을 쌓으면서 조금씩 소방수의 DNA를 각인시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10세이브는 김윤동에게는 값진 훈장으로도 같은 것이다.

앞으로 20세이브 혹은 30세이브 투수로 향하는 성장판이다. 김윤동의 성장이 KIA의 내일에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김남일 다운 한마디 “맘 같아서는 ‘빠따’ 들고 싶은데”

신태용호 합류...대표팀 코치로서 첫 발

신태용호에 합류한 김남일 코치는 현역 시절 카리스마 넘치는 선수로 통했다. 부박하면서도 탁월한 축구 센스로 허리 라인을 책임졌고 그라운드 바깥에서는 누구보다 근엄하게 후배들을 이끌었다.

발언에도 거침이 없었다. 2002년 한일월드컵을 앞두고 치른 프랑스와의 평가전에서 자신과 충돌한 지네딘 지단 현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 부상으로 쓰러지자 “내 월급에서 (치료비)를 까라고 하라”고 했던 것은 축구팬 사이에서 여전히 회자되고 있다.

김 코치는 1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 포항 스틸러스전을 관전하는 것으로 대표팀 코치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다. 하프타임후 취재진과 마주한 김 코치는 ‘김남일스러운’ 말로 첫 인사를 대신했다.

김 코치는 선수들을 엄하게 지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마음 같아서는 들어가서 ‘빠따(배트)’를 들고 싶다”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문제점으로 떠오른 선수들의 정신력 문제를 예뻐라 질타한 것이다.

김 코치는 “세월도 많이 흘렀고 시대가 시대이니 그러면 안된다”면서 “훈련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는지, 경기장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는지 말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신태용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김남일 코치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7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FC 서울과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를 관전하고 있다.

김 코치는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공격수들을 끈질기게 몰고 늘어지며 이름을 알렸다. 2015년 현역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대한축구협회 미래전략기획단 위원으로 활동한 김 코치는 올해 초 최용수 감독의 장수 수닝(중국)으로 향했으나 최 감독이 장수를 떠나면서 자유의 몸이 됐다.

김 코치는 “어려운 시기에 대표팀에 들어왔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감독님과 선수간 가고 역할을 맡을 것 같다. 월드컵을 통해 했던 경험을 선수들과 경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김 코치는 “경쟁도 중요하지만 협력이 더 중요하다. 지금 굉장히 위기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모든 축구인들이 하나가 돼 극복해야 한다”면서 힘을 모아 9회 연속 월드컵 진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소연 “US오픈, 내 삶의

터닝포인트...우승 한번 더”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유소연(27·메디힐)은 세계 여자골프 특급대회인 US여자오픈에 대해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해 준 대회”라며 강한 애착을 드러냈다.

유소연은 14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 주 베드민스터의 트립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US여자오픈(총상금 500만 달러)을 앞두고 가진 LPGA닷컴과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올 시즌 유소연은 미국 진출 이후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우승 한 뒤 지난달 월마트 이칸스 챔피언십에서 또 다시 정상에 등극하며 통산 3승 중 2승을 최근 3개월 사이에 따냈다.

이와 함께 생애 처음으로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에 등극하며 3주째 골퍼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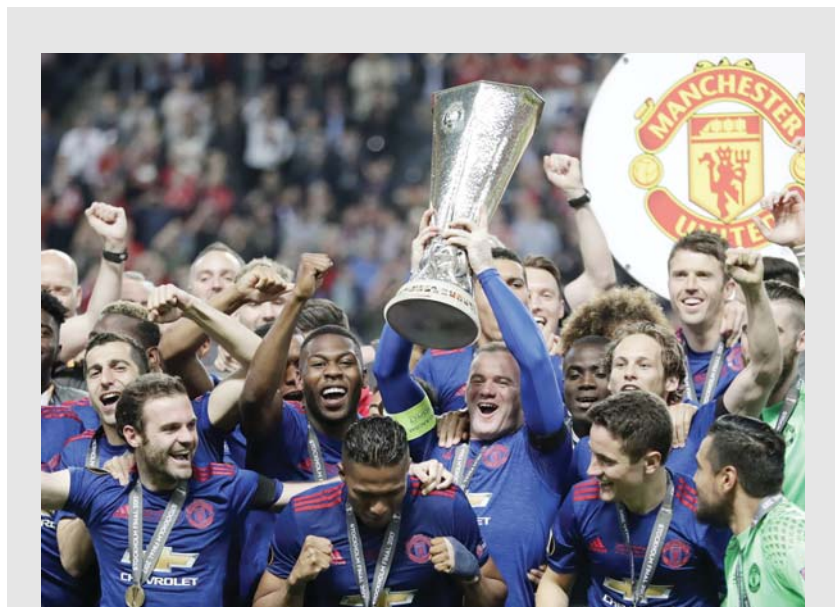
유소연은 2011년 US여자오픈 우승을 계기로 본격적인 LPGA 투어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6년 동안 우승 소식을 전하지 못하다가 올 시즌 긴 터널을 뚫고 빛을 봤다.

유소연은 “2011년 우승 당시 마치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아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내 삶의 많은 걸 바꾼 가장 큰 터닝포인트 중 하나라며 “올해 매우 성공적인 시즌을 치르고 있어 느낌이 좋다. 이번 주 또 한 번 메이저 대회서 우승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유소연은 올 시즌 LPGA 투어 우승 가운데 유일한 다승자다. 올 시즌 12개 대회에 출전해 9차례나 ‘톱10’에 들었다.

다만, 최근 아버지의 세금 체납으로 한국에서 구설수에 오르는 등 또 다른 심리적인 부담감을 안고 대회를 임하게 됐다.

유소연은 “세계 1위가 되고 이전보다 주목을 받고 있어 때로는 압박감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면서도 “연습하고 대회를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부담감을 덜고 준비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맨유, 포브스 선정 세계 최고 가치 축구팀 ‘4조2000억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축구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3일(한국시간)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최고 가치 스포츠팀 보고서에 따르면 맨유는 축구팀 중 가장 높은 전체 3위에 올랐다.

맨유는 36억9000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조2000억원이다.

FC바르셀로나가 36억4000만 달러(약 4조1400억원)로 전체 4위를 차지했고 레알 마드리드가 35억8000만 달러(약 4조2800억원)로 뒤를 이었다.

전체 1위는 미국프로풋볼(NFL) 소속의 델러스 카우보이스다. 델러스 카우보이스는 42억 달러(4조7800억원)의 가치를 뽑았다.

미국 메이저리그(MLB) 명문 뉴욕 양키스가 37억 달러(약 4조 2100억원)로 전체 2위를 차지했다. 뉴욕 닌스는 미국프로농구

◇포브스 선정 세계 최고 가치 스포츠팀

1. 델러스 카우보이스(42억 달러·미식축구)
2. 뉴욕 양키스(37억 달러·야구)
3. 맨체스터 유나이티드(36억 9000만 달러·축구)
4. FC바르셀로나(36억4000만 달러·축구)
5. 레알 마드리드(35억8000만 달러·축구)
6. 뉴잉글랜드 패트리엇츠(34억 달러·미식축구)
7. 뉴욕 닌스(33억 달러·농구)
8. 뉴욕 자이언츠(31억 달러·미식축구)
9.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30억 달러·미식축구)
10. LA 레이커스(30억 달러·농구)

(NBA) 소속 구단으로는 가장 높은 33억 달러(약 3조7600억원)로 전체 7위에 자리했다.

톱10에는 NFL팀 4개, 축구팀 3개, 농구팀 2개, 야구팀 1개가 이름을 올렸다.

양동현 “대표팀? 마음은 항상 똑같다”

포항 스틸러스 최전방 책임...13골로 득점 선두 질주

양동현(포항)이 현재 K리그 클래식 최고의 국내 공격수라는 점에 이견을 갖는 이는 드물 것이다.

지금의 양동현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포항 스틸러스의 최전방을 책임지고 있는 그는 13골을 넣어 득점 부문 선두를 질주 중이다. 시즌이 절반 가량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난해 수렴한 개인 한 시즌 최다 득점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맹활약이 계속되면서 자연스럽게 양동현의 대표팀 승선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세르게이 대표팀 사령탑으로 부임한 신태용 감독은 이런(8월31일), 우즈베키스탄(9월5일)과의 2연전을 앞두고 K리그를 중용할 뜻을 내비쳤다.

발탁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리그 득점 1위에 관심을 두는 것은 자명하다. 실제로 신 감독은 지난 1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찾아 양동현의 플레이를 직접 지켜봤다.

앞선 8경기에서 8골을 넣었던 양동현은 정작 신 감독이 관전하는 날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했다. 팀이 수비 위주의 경기를 펼치면서 역습이 언제 플레이에 집중해야 했던 탓에 공격 분능은 잠시 감춰뒀다.

경기가 끝난 뒤 만난 양동현은 “(대표팀 감독이 온다는 사실) 선

수로서 신경 안 쓸 수는 없다. 당연히 신경 쓰인다”면서 “훈련 때 오셨으면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을 텐데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던 것 같다”고 웃었다.

양동현은 10대 시절부터 윌성부름 덕으로 각광을 받았다. 대한축구협회의 축구 유망주로 뽑혀 프랑스로 유학길에도 올랐다.

그러나 성인 대표팀과는 좀처럼 연이 닿지 않았다. 남아공월드컵 최종예선이 한창인 2009년 6월 부름을 받아 두 차례 A매치에 나선 것이 경력의 전부다. 총 출전 시간은 33분에 불과하다.

그동안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양동현은 대표팀 최전방 부재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이번이 선택에서는 제외됐다. 내심 기대했던 선수 입장에서 속이 쓰릴 수밖에 없다.

양동현은 “슈틸리케 감독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내가 리그에서 잘해도 선택은 감독님의 몫이다. 아무리 배려당이라고 해도 언론에서 조명이 되면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결국 (발탁) 안 되면 상처를 받는 것은 나”라고 조심스러워했다.

수차례 쓰러지고 다시 서기를 받



복했던 그는 이번에도 본의 아니게 같은 처지다. 양동현은 “마음은 항상 똑같다”면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모든 기량을 그라운드에서 쏟아낸 뒤 선택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포항은 이번 주말 수원 삼성과 홈 경기를 치른다. 신 감독의 포항 행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의 행보에 귀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양동현은 “홈 경기에 오시면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라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김승대, 포항 완전 이적 확정

2015년 12월 이후 1년7개월만에 친정복귀

‘라인 브레이크’ 김승대(26)가 포항으로 돌아왔다. 2015년 12월 이후 1년7개월만의 친정 복귀다.

포항은 12일 메디컬 테스트를 마친 김승대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방식은 완전 이적으로, 계약 기간은 2년6개월이다. 등번호는 25번으로 확정됐다.

김승대는 포항에서 태어나 포항 유스인 포항제철초, 포항제철중, 포항제철공업고를 졸업한 포항맨이다. 영남대를 거쳐 2013년 포항을 통해 프로에 데뷔, 세 시즌동안 K

리그 85경기에 출전해 21골 18도움을 기록했다.

2014년에는 K리그 신인상에 해당하는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했고 그해 인천아시아게임 금메달 획득에도 기여했다. 김승대는 절묘한 타임과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 상대 수비의 오프사이드 라인을 깨뜨리며 ‘라인 브레이크’라는 별명을 얻었다.

중국 슈퍼리그 연변 푸더에서 뛰던 김승대는 복수의 클럽으로부터 제의를 받았지만 자신을 키워준 포



항을 선택했다. 김승대는 “포항으로 돌아오게 돼 정말 기쁘다. 스틸러스에서 다시 뛰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하루빨리 스틸러스에서 팬 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승대는 오는 15일 오후 7시 스틸러스에서 펼쳐질 수원 삼성전에서 홈 팬들에게 직접 입단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